

# 전국 15개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

- 8월 29일부터 이용객 안전 직결된 시설물 중심으로 점검 실시...  
 지방항공청, 공항공사, 민간 전문가 참여하여 실효성 확보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  -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,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,
    - \* 쇼핑센터 천장 마감재 탈락(7.4, 제주), 태국 국제공항 무빙워크 사고(6.30) 등
  -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(마감재, 설치미술품 등), 이용이 잦은 설비(무빙워크, 자동문 등), 소규모 취약시설(가시설, 부대건물 등)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,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,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·고정상태 등 기존 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.
  - 점검 시에는 지방항공청·공항공사는 물론, 일반인(대학생)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“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,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구나 대한민국 공항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철운 (044-201-4347)
	공항운영과	담당자	사무관	송대종 (044-201-4344)

□ **점검기간 및 대상**

- (기간) '23. 8. 29. ~ 9. 22. (19일간, 공휴일 제외)
- (대상) 4,182개소
  - \* 전광판(635), 마감재(15), 설치미술품(6), 기계시설(3,518), 소규모 취약시설(8)

— <중점 점검 분야> —

- ①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(마감재, 전광판 등), ②공항내 주요설비 (무빙워크, 자동문 등), ③소규모 취약시설(가시설, 부대건물 등)

□ **점검계획**

- 전국공항(15개)을 대상으로 공항공사가 1차점검을 실시하고(8~9월, 민간전문가·일반인 참여), 국토부(항공청)가 확인점검(9월, 민간전문가 참여)

□ **중점 점검사항 (예)**

- (부속물) 벽 및 천장 마감재, 천장 조형물, 조명기구, 안전난간, 전광판 등 부속물의 처짐·균열·파손 및 고정상태 확인
- (설비) 승강설비 운행중 소음 및 진동, 승차감 적정 여부,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작동상태, 자동문 상태 및 외장 구조체 이상 여부
- (소규모 시설) 구조부재의 균열 및 누수와 처짐 및 기울어짐 등 확인

마감재/조형물	전광판	무빙워크
		